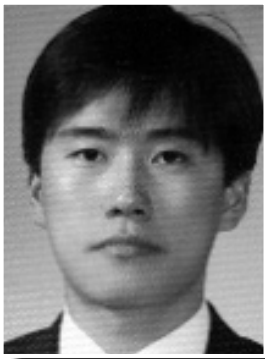




# 2008년 가스산업 정책



**정승일** 팀장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

## 1. 2007년도 주요 추진 정책

### 【액화천연가스 부문】

2007년 가스산업은 100불을 향해 치닫는 고유가 체제 속에서 국가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많은 변화를 겪었던 한해로 평가됩니다.

2007년 1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



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스공급설비의 공동 이용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도입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는 등 직도입제도에 대한 반대 주장도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향후 가스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 1월 호주 NWS 50만톤 연장 계약(09~16), 3월 카타르 210만톤 계약(07~26), 10월 오만과 200만톤 도입 MOU체결함으로써, 현재 공급자 중심의 국제 LNG 시장에서 필요물량을 적기에 확보하여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 여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2007년 9월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천연가스공급 계획(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확정에 따라 러시아로부터의 PNG 도입논의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99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온도·압력차이에 따른 판매량차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08.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동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

07.7월부터 도입하였고, '08.1월부터는 실제 온도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분쟁이 이어져왔던 지역난방공급지역에서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제도 개선, 난방방식 전환시 발생하는 유희시설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양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보조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용 요금을 개선하였고,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산정방법도 '08.1월부터 개선하여 유가변동에 따른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부문]**

2007년 액화석유가스 부문은 LPG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과 수요개발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중국 등에서 LPG와 혼합·사용되고 있는 DME(Dimethyl Ether) 도입을 위하여 "DME실증·시범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증연구를 위한 5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증연구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계획대로 2012년도까지 DME가 상용화되어 LPG혼합 사용될 경우, LPG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05. 11월부터 추진하였던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완료(07.4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사업이 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8년에는 업계의견을 재수렴,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판 가격인하를 위해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절기(3개월)에 한시적으로 LPG 특소세 30%(12원/kg)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과 LPG 수요개발을 위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LPG사용 허용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초 관련규정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 2. 2008년 추진 주요 정책

### 【액화천연가스 부문】

2008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경쟁기반 조성 등 가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일본 니카타현 지진발생에 따른 원전가동 중지에 따라 동절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였으나, 선제적 물량확보 및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천연가스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동절기부터는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 산정시 발생하던 적용시차를 해소하여 유가 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가격변동효과를 즉시 반영하고, 발전용 약정물량 준수를 통



해 유가변동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발전용 수요급증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전가동 중지, 이상한파 등 불시상황에 대비하여 ‘천연가스수급관리협의회’ 운영 및 일일 LNG 재고·판매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금번 수급계획에는 안정적 물량확보 방안, 수요관리 방안, 저장시설 확충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 한러가스협정 체결 이후 가스공사와 가스프롬간에 논의되던 러시아로부터 PNG 도입논의가 2007년 9월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천연가스공급 계획(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확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중입니다. UGSS 확정 이후 열린 한러자원협력위(2007.12월)를 통해서 러시아측은 지난 9월 발표한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천연가스 개발, 운송, 공급에 관한 통합공급시스



템 (UGSS : Unified Gas Supply System)에 대해 우리측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PNG 도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가스공사·가스프롬간 공동조사를 올해부터 개시

하기로 합의하여 PNG 도입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급여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국제적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수요관리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위적인 수요억제보다는 왜곡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수용가의 자발적인 수요절감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LNG 소비물량, 동하절기 수요편차 등을 감안할 경우 저장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바, 향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적기 확충이 필요합니다. 가스공사의 기존 평택·인천·통영 기지내 부지가 2012년에 포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제4인수기지 최종입지를 확정짓고 2013년까지 1차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가소비용 직도입사를 포함하여 민간부분의 저장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7년 가스 공급설비공동이용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공급(저장·배관)설비 이용요금을 산정하여 규제시장과 비규제시장 소비자간, 기

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원가부담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가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외연확대의 틀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수준의 기술니즈 및 대응역량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가스분야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스공사 및 외부와의 공동연구·협력과제를 확대하여 산업전후방·산학연 네트워크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가스공사는 '83년 설립 이후 짧은 시간내 도입물량(2,350만톤, '06년), 공급설비부문(저장용량 488만kℓ) 세계 1위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류부문(탐사, 개발, 생산)은 현재 RasGas 지분 참여(3%) 등을 통해 가스 20만톤 생산하여 경쟁기업에 비교할 경우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가스공사가 갖춘 세계 최고의 구매력, 설비운영 능력 등을 활용하여 '상류부문 진출, 중·하류부문 역량강화' 통한「탐사-개발-생산-수송-공급」전후방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부문별 및 지역별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안정적 수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0년간 생산전 개발 참여, 가스전 개발·운영 기술 확보 등 상류부문에 11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2012년에는 337만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시베리아 천연가스배관망(UGSS) 건설참여, 국제 LNG 저장·트레이딩 사업 등 해외 사업 진출을 통해 중·하류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부문】**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LPG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LPG수요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겠으며 특히,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작년에 추진하려다 보류되었던 배송센터 사업을 업계의견을 좀 더 수렴·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 배송센터사업에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배송센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던 용기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용기관리비용 절감 및 용기유통 효율화를 위한 전산체제 구축 보조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달거리는 원거리이나 LPG사용량은 적어 물류비가 과다 소요되는 농어촌 등 벽지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 소형용기는 거래를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수입·정유사, 충전업, 판매업, 집단공급업 등 유통단계별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금년에도 “중소형 LPG 상용차 개발사업”과 “DME실증·시범보급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LPG 상용차 보급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DME가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PG 신규수요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신정부 공약사항인 “대운하 건설계획”이 구체화되면 대운하 운행을 위한 친환경 경적 LPG유람선이나 레저용 LPG보트 개발 등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회째를 맞는『LPG의 날』은 LPG 사업자뿐만 아니라 LNG사업자도 포함시켜 상호간 이해를 넓히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가스산업인의 날”(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한해에도 가스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가 우리 산업·가정의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스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도 천연가스와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